

‘-다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 연구

-담화화용정보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박 나 리

Abstract

Park Naree. 2013. 2. 28. **A study on descriptions of contraction form ‘-dani’ in KFL grammar.** *Bilingual Research* 51, 45-8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dani’ in various linguistic levels such as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morpheme and sentence, discourse and pragmatics and to suggest not only its descriptive methods in Korean educational grammar for foreign learners but some references for descriptions of other ‘-dago ha-’ contraction forms.

In the previous studies, ‘-dani’ has not been investigated as its own, whereas has been partly mentioned as one of the ‘-dago ha-’ contraction forms. As a result, its various information according to language levels has not been explored. ‘-Dani’ shows most various meanings in ‘-dago ha-’ contraction forms. If the description on ‘-dani’ in various linguistic levels could be suggested, other ‘-dago ha-’ contraction forms such as ‘-dago’, ‘-damyeonseo’, ‘-danika’ are expected to get its description references from it.

In various linguistic levels, this study especially would focus on discourse-pragmatics information of ‘-dani’ since it is related to highly complicated factors of its communication situation such as a speaker, a listener, a situation itself, so is difficult to be described as a whole. Also, this study would introduce comparison as a main method since comparison between common things and differential things can be effective to foreigner learners than any other methods. **(University of Seoul)**

【Key words】 discourse-pragmatic(담화화용), functional meaning(의미기능), poly-semantic word(다의어), homonym(동음이의어)

1. 연구목적과 필요성

문법항목을 기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언어층위에서의 정보가 고려된다. 발음억양 정보, 형태통사 정보, 담화화용 정보 등이 다각적으로 기술될 때, 문법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문법에서는 실제상황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법항목이 쓰이는 상황맥락에 대한 담화화용 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 담화화용 정보는 형태소 유무의 이원적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정보나 상승, 하강의 이원적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발음억양 정보와 달리 화자, 청자, 의사소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담화화용 정보는 한국어 교사들이 교수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유사 문법항목²⁾이나 동음이의 및 다의적 용법의 의미기능을 구분해내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언어교육적 중요성이 각별하다³⁾.

-
- 1) 담화층위 문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미혜(2005:29-34) 참조.
 - 2)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문법교육에 대해 설문조사한 방성원(2011:198-200)에 따르면, 유사 문법항목 설명에서 교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급 이상 학습자들의 경우, 유사 문법항목 비교를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묘한 어감의 차이, 사용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 3) 가령, 유사 문법항목인 ‘-겠-’과 ‘-을 것-’의 경우, 공통적으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지만 화청자의 정보공유나 청자 배제 등의 담화화용적 변인에 의해서는 서로 대립된다. 곧 ‘-겠-’이 [+화청자 정보공유]와 [-청자 배제]인 데 반해, ‘-을 것-’은 [-화청자 정보공유]와 [+청자 배제]이다. 아래 예1)은 화청자가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청자를 고려한 발화이기 때문에 ‘-겠-’이 자연스러운 반면, 예2)는 화청자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을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설명될 수 있다(이윤진 2009:96-99 참조).

예1) a: 지원자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b: 제가 할 거예요.(?)하겠습니다.(○)

예2) a: 내일 뭐 하겠어?(?)할 거야?(○)

이처럼 담화화용 정보를 알고 운용하는 능력이 핵심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을 위한 교수자료나 교수법으로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의 담화문법 연구는 2000년대 전반까지 그다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강현화 2010:228).

본 연구는 담화화용 정보가 동음이의 및 다의어의 의미기능 구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문법에서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다니’의 다양한 의미기능들을 담화화용 정보에 기초하여 서로 구별하고 기술함으로써 ‘다니’에 대한 총체적인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⁵⁾. ‘다니’는 ‘-다고 하-’ 축약형(contraction forms)⁶⁾인 ‘-다고’, ‘-다면서’, ‘-다니까’ 등과 일종의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가지며, ‘-다고 하-’ 축약형 가운데 가장 다양

b: 친구 만나겠어.(?) 만날 거야.(○)

- 4) 이해영(1998:413)에서는 한국어 교육문법을 교육문법과 교수문법을 구분하고, 교육문법이 실제 수업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문법이라면 교수문법은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 의사소통적 문법교수를 가능하게 해 주는 문법이라 하였다. 본고에서 말하는 한국어 교육문법은 이 가운데 한국어 교사들이 참고하고 기릴 수 있는 교육문법이다. 그러나 교육문법이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문법의 수용자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지학습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이해와 학습에 용이한 비교대조 방법을 도입하여 ‘다니’를 기술하고자 한다. 3,4장에서 ‘다니’ 간 공통의미와 개별의미를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한국어 교육문법적 맥락에서 ‘다니’에 대한 기술방안을 자세히 논하게 될 것이다.
- 5) ‘다니’의 개별 의미기능을 논하는 4장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지만, ‘다니’ 간 변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담화화용적 변인은 ①화자와 청자의 높임관계, ②선행요소 전제, ③발화 유도 가능성, ④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이다.
- 6) 여기서의 ‘축약(contraction)’은 형태(form)적인 줄임을 말한다. 축약은 환원적 축약과 비환원적 축약으로 나누어진다. 환원적 축약이 본래의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반면, 비환원적 축약은 문법적, 의미적 변화를 겪은 결과 본래의 형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이다. 비환원적 축약형은 문법화된 표현, 재구조화 된 표현, 축약형 등으로도 불린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다니’도 환원적 축약형(위의 예1)과 비환원적 축약형(예2-4)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비환원적 축약형의 경우 다양한 의미기능으로 구별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 의미기능을 보여준다(아래 예 1-4).

- (1) 철수가 요즘도 그렇게 바쁘다니?
- (2) a: 나 내일 유학 가.
b: 유학 간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 (3) 요즘 왜 이렇게 스팸메일이 많이 온다니?
- (4) (11월 달력을 넘기며) 아, 벌써 12월이러니...

(1)은 ‘바쁘다고 하니’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환원적 축약형으로 ‘-대니’라고 발음되기도 한다. 반면에 (2)-(4)는 ‘-대니’로 발음될 수 없고 ‘-다고 하니’로 바꾸어 쓸 수 없는 비환원적 축약형들이다. 이 가운데 의미기능의 변별이 어려운 것은 (2)-(4)의 비환원적 축약형일 것이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환원적 축약형을 ‘환원적 -다니(예1)’로 칭하고, 비환원적 축약형은 각각 ‘-다니 1(예2)’, ‘-다니 2(예3)’, ‘-다니 3(예4)’으로 부르기로 한다⁷⁾. ‘-다니’의 다양한 의미기능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면, ‘-다니’가 가장 광범위한 의미기능의 분포를 보이는 만큼, 다른 ‘-다고 하-’ 축약형에 대한 문법기술에서 일종의 기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다니’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다니’의 구성요소인 ‘-다.’와 ‘-니’의 분석을 통해 ‘-다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기능을 도출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담화화용 조건을 상세화한 선행연구(윤석민 2000, 박재연 2006)를 바탕으로, ‘-다니’의 다양한 의미기능들을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1차 비교 분석항목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1차 비교항목을 통해 ‘-다니’ 서로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다고 하-’ 축약형 가운데 ‘-다니’와 공통요

7) 따라서 이하 ‘-다니’라고 할 때에는 비환원적 축약형 ‘-다니’를 가리키고, 환원적 축약형 ‘-다니’에 한해서 ‘환원적’이라고 유표화 시켜 부른다.

소가 가장 많은8) ‘-다고9)’, ‘-다면서’, ‘-다니까’ 등도 ‘-다니’와 비교해 봄으로써 ‘-다고 하-’ 축약형 간의 세부 구별을 위한 2차 비교 분석항목을 귀납적으로 추출한다. 비교대조 방법론을 도입하는 이유는 동일한 분석항목에 근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개체의 독자적인 특성을 명징하게 밝힐 수 있고, 유사 문법항목 변별과 다의적 내지 동음이의적 의미기능 구별에도 교육적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추출된 비교 분석항목들에 의거하여 5장에서는 ‘-다니’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관류하는 공통된 의미기능과 개별적인 의미기능을 살핀 후, ‘-다니’에 대한 총체적인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을 제안한다10).

2. 선행연구 고찰 및 문제점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다니’와 ‘-다고 하’ 축약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①이론적인 업적과 ②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
- 8) 발생론적으로 ‘-다고 하-’ 구성과 관련 있다는 점, 문말어미화로 인해 의문의 수행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선행발화를 전제한 상황에서 발화에 대한 확인의 되물음에 사용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 9) ‘-다고’는 확인질문에 사용되는 ‘-다고(아래 a)’와 확인답변에 사용되는 ‘-다고(아래 b)’ 및 [화제전환]의 ‘-다고(예. 아, 참, 너 다음 학기에 휴학한다고?)’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되물음의 ‘-다니’를 논하는 과정에서 그 유사 문법항목으로 ‘-다고’를 비교하는 것이니만큼 확인대답에 사용되는 아래 b와 같은 ‘-다고’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예) a: 영희가 오늘 결석한다고?
b: 응, 결석한다고.
- 10) 비교항목은 1차 비교항목과 2차 비교항목으로 구분된다. 4장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지만 1차 비교항목이 ‘-다고 하-’ 축약형과 다른 표현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담화화용 조건을 기술한 선행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2차 비교항목은 ‘-다고 하-’ 축약형 서로 간의 변별을 위해 본고에서 마련한 것이다. 2차 비교항목은 1차 비교항목 이후에 적용된다는 위계적 특성을 가진다. 가령 [선행요소 전제]가 1차 비교항목이라면, 2차 비교항목은 그 선행요소가 과연 ‘발화’인가 아니면 ‘의사소통상황’인가에 따라 다시 [선행발화 전제], [기정적인 의사소통상황 전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사전에 나타난 문법기술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2.1. 한국어교육에서의 ‘-다니’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간접인용을 논의한 연구는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간접 인용표현 관련 문법기술과 학습활동 등을 살펴본 교재분석적인 논의(방성원 2004, 장미라 2008, 이금희 2009), 그리고 간접인용표현의 화행기능을 밝혀내고,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의 방향성을 제안한 논의(강현화, 황미연 2009, 김지혜 2011, 김영아, 조인정 2012)로 크게 구분된다.

방성원(2004)에서는 한국어교재에 제시된 ‘-다고’ 관련 구성을 형태, 의미적으로 살펴 빈도수와 난이도를 고려한 배열순서를 제안하였고, 장미라(2008)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간접인용 교육이 주로 직접인용과의 형태(form)적인 관련성의 문제로 환원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금희(2009)에서는 한국어교재에 수록된 간접인용문의 설명과 연습문제를 살피고 연습문제들이 의사소통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인 대처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다니’를 하나의 축약된 표현으로 전제하고 살핀 연구는 주로 그 ‘의사소통적 기능’에 초점을 두었는데, 강현화, 황미연(2009)에서는 ‘-다니’, ‘-다고’, ‘-다면서’ 등의 ‘-다고 하-’ 축약구성이 인용보다 오히려 불평화행으로 많이 나타나는 한국어 현상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교육문법 사전과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불평화행 관련 문형을 비교하고 불평의 강도에 대한 한국어모어화자의 의식을 조사하여 보였다.¹¹⁾ 김지혜(2011)

11)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는 의문, 못마땅함, 비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과 놀람, 감탄, 분개(표준국어대사전)로 기술되었고, 한국어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니’는 2.43의 불평강도로서(19위)로서 따짐(63.33의 강도)과 못마땅함(16.67의 강도)의 의사소통유형으로 분류되었다(같은 책: p282).

에서도 간접인용표현이 인용과 관련 없는 불평장면에서 오히려 많이 쓰이는 현상을 지적하고 이러한 간접인용의 실제적인 사용맥락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교수학습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김영아, 조인정 (2012)에서는 구어에서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주목받지 못한 종결어미인 ‘-다고 해’의 축약형 ‘-대’를 ‘화자가 전달하는 명제가 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보고’의 표지로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문법 분야에서는 다양한 간접인용표현의 하나로서 ‘-다니’가 직접인용과의 관계 아래에서 형태적으로 파악되거나, 다른 ‘-다고 하-’ 축약형들과 함께 개괄적으로 논의된 결과 (김영아, 조인정 2012:4), ‘-다니’가 가진 독특한 의미기능이 세밀하게 분석되지 못했다(강현화, 황미연 2009:285-286)는 한계가 있었다.

2.2. 한국어 교육문법 사전에서의 ‘-다니’ 기술

본 장에서는 한국어 교육문법 사전(백봉자 2001, 이희자, 이종희 2001, 국립국어연구원 2004)에 나타난 ‘-다니’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세부내용을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교육문법 사전에 나타난 ‘-다니’ 기술

	항목	구분	기술설명
백봉자 (2001)	다 니 1	연결 어미	간접인용을 나타내는 ‘-는다고 하’에 연결어미 ‘-니’가 결합한 ‘-는다고 하니’의 준말. 인용된 선행절이 후행절의 상황을 설정, 선행절은 후행절의 근거 예)골목 안에서 싸게 판다니, 거기서 사자.
	다 니 2	결합 형	‘-는다니 무슨 말입니까?’의 후행절이 생략된 것.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인용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심해서 되물음. 예)그 사람은 자주 안 옵니다. 자주 안 온다니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004)	다 니 1	종결 어미	어떤 사실에 대해 놀람이나 감탄 혹은 믿을 수 없음을 나타냄. 예) 말로만 들었는데, 네 약혼자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다 니 2	종결 어미	(형용사와 ‘-았-’, ‘-겠-’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냄. 예) 올 겨울은 왜 이렇게 춥다니?
	다 니 3	표현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상대방에게 묻거나 그 내용의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내는 표현 예) 그 그림을 보고 멋있다니 정말 취향이 독특하네요.
이희자, 이종희 (2001)	다 니 1	해체 의 종결 어미	‘-았-’, ‘-겠-’ 뒤에 쓰임. 의심스럽거나 뜻밖의 사실로 느껴져 놀라서 말함. 상승조. 예) 이걸 버리라니?
	다 니 2	준꼴	해라체의 종결기능. ‘-았-’, ‘-겠-’ 뒤에 쓰임. 입말에서 ‘-대니’로 발음되기도 함. 예) 재는 언제 점심을 먹는다니?
	다 니 3	종결 어미	종결어미처럼 쓰여 의심스럽거나 뜻밖의 사실로 느껴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감탄조로 말함. 뒷 절에서는 유감 내용 함축. 하강조로 실현. 예) 저렇게 약해보이는 사람이 권투를 하다니.
	다 니 4	준꼴	들은 사실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그에 근거하여 말함. 예) 영숙이가 개인전을 연다니 가야겠다.

‘-다니’에 대한 위의 문법기술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다니’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총체적인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담화화용 정보가 상세화 되지 못하였는데, 가령 백봉자(2001)에서는 되물음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니’와 상관적 장면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니’¹²⁾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고 이희자, 이종희(2001)에서는 간접인용의 의미가 없어서 ‘-대니’로 발음될 수 없는 ‘-다니’, 곧 ‘왜 이렇게 날씨가 춥다니?’와 같은 자문(自問)적인 ‘-다니’에 대해 기술되지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문법(2004)에서 역시 자문적인 ‘-다니?’의 직시소와의 공기(co-occurrence) 조건이 상세화 되지 못하여¹³⁾ *

12) 이는 본고의 용어로 ‘-다고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날씨가 춥다니?’와 같은 문장의 비적합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축약형들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들 표현 간의 의미 있는 비교와 대조 등의 설명이 없어서 학습자들이 동일한 형태(form)의 상이한 의미기능을 변별해 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비교항목을 기준으로 한 비교대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다니’와 그 유사 문법항목인 다른 ‘-다고 하-’ 축약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기술된다면, 유사 문법항목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표현하고자 하는 담화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가지는 문형 표현이 무엇이고 유사한 문형표현은 해당 담화상황에서 왜 쓸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리 해석되는지(강현화 2005:125) 기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⁴⁾.

셋째, ‘다니’가 가진 반문(反問)의 기능을 기술한 경우, ‘a-b, b-a’의 순서교대에서 더 나아가 ‘a-b, b-a, a'-b’까지 고려되지 못했다. 여기서 두 번째 순서교대인 ‘a'-b’는 다른 발화를 유도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로서 ‘다니’의 유사항목인 ‘-다면서’, ‘-다고’와 ‘-다니’를 변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¹⁵⁾. 같은 ‘다니’ 중에서도 발화를 반드시 유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가령 아래(5)의 ‘다니’는 청자의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발화 유도성이 있고 예(6)의 ‘다니’는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기에 발화 유도성이 없다고 보이는 바, 세 번째 순서교대가 중요한 변별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13) 이는 본고의 용어로 ‘-다고 2’에 해당한다.

14) 이러한 문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형 제시에서도 유사 담화 기능을 간과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된다(이윤진 2009:152).

15) ‘-다면서?’, ‘-다고?’는 청자의 응답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점에서 발화 유도성이 있는 반면에, ‘다니까’는 청자의 응답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화 유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5) a: 어제 철수가 미국으로 떠났다.
 b: 철수가 떠났더니?
 a: 이민 가는 건 아니고, 유학이래.
- (6) a: 어제 철수가 미국으로 떠났다.
 b: 철수가 떠나다니...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층위 언어수준에서 ‘-다니’의 다양한 의미기능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다니’의 유사 문법 항목인 ‘-다고’, ‘-다니까’, ‘-다면서’ 등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3장에서는 비교대조가 요소 간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 관계이니만큼, 기초작업으로서 ‘-다니’ 간에 나타나는 공통된 의미 기능부터 탐색해 보기로 한다.

3. ‘-다니’의 공통 의미기능

3.1. ‘-다-’의 의미기능

‘-다니’의 ‘-다-’는 발생적으로 ‘-다고 하니’의 보문에 쓰인 종결어미 ‘-다’라고 볼 수 있다¹⁶⁾. 종결어미 ‘-다’는 ‘말할이가 기정사실화한 명제를

16) 여기서 비환원적 ‘-다니’의 원형을 의미적 상관성이 필연적이지 않는 ‘-다고 하니’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복합형식에 대해 구성요소들이 자의적이지 아니라고 보는 견해(Hockett 1958)와 복합형식이 보이는 의미가 반드시 그 구성요소들의 합이 아니므로 복합형식은 그 구성요소들과 상관없이 자의적이라고 보는 견해(Anoroff 1970)는 늘 대립되어 왔던 문법관이다(이지양 1985:317). 전자는 발생론적 시각이고 후자는 현상론적 시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니’ 자체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발생론적 시각에서 ‘-다니’에 접근하는 것이 그 실체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다니 1’의 경우, 비록 ‘-다고 하니’로 바꾸어 쓸 수는 없어도 상대방의 선행발

알림(한길 1991)’, ‘기정사실성(이필영 1995)’, ‘선행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믿음(박나리 1998)’ 등으로 기술되어온 것이다.

(7) 나는 영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위의 예에서 화자인 ‘나’는 선행명제인 ‘영희가 건강하다’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선행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화자는 ‘다’를 보문의 종결어미로 취하지 않고 다음의 종결어미를 사용할 것이다.

(8) 나는 영희가 건강한지 잘 모른다.

(9) 그는 나에게 영희가 건강하냐고 물어보았다.

(10) 영희야, 좀 건강해지거라.

안명철(1990)에서는 ‘다’가 인용보문에 쓰인 것에 대해 ‘제3자에 의하여 참임이 인정되는 사건을 화자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임’이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의 의미기능으로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추출해 볼 수 있다¹⁷⁾.

화를 발화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특징은 ‘-다고 하니’ 구성에서의 [인용성] 자질이 남아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니’의 의미기능 간의 공통점(3장)과 차이점(4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문법을 재구성할 때에는(5장) 실용성과 효용성, 개별성 등 한국어 교육문법적 맥락(이미혜 2005)에 입각하여 현상론적으로 설명하는 절충적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예컨대 본고의 마지막에서는 ‘다니 2’의 경우, ‘다니 1’, ‘다니 3’과 의미적 상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제시할 것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17) 4장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지만, ‘다니’의 경우 기정사실성은 기정적인 선행 발화의 사실성일 수도 있고 기정적인 의사사통상황의 사실성일 수도 있으며 화자의 인식 속에서의 기정사실적 개념일 수도 있다.

3.2. ‘-니’의 의미기능

‘-다고 하니’의 ‘-니’는 축약을 통해, 문장 끝에 오는 위치의 변화를 겪게 된다. ‘-니’가 문장 끝에 위치하게 되면서 의문의 종결어미 ‘-니’와 형태(form)가 겹치게 되어 일종의 유추작용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로 고착화되었다고 생각된다¹⁸⁾. ‘-다니’의 ‘-니’에 놓이는 문장종결의 수행역양은 바로 이러한 기능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¹⁹⁾. ‘-다니’의 ‘-니’가 축약을 통해 얻게 된 ‘의문’의 수행성은 선행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이 되면서 ‘-다니’가 공손성(politeness)을 발휘해야 하는 의사소통상황에서 사용되기 어렵다는 담화화용적 제약을 파생시켰다고 본다. 찬성이나 동의, 공감 등이 공손전략과 관련 있다면(Leech 1983)²⁰⁾, 선행명제가 상대방의 발화내용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결코 공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의구심을, 들은 즉시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반문(反問)에서 쓰인다는 점도 ‘-다니’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다니’가

18) 유사 문법항목인 ‘-다고’, ‘-다면서’, ‘-다니까’도 ‘-고’, ‘-면서’, ‘-니까’에 문말역양이 놓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9) 권성미(2010:19)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처럼 쓰일 때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기능에 대해 제시하면서도 역양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급에서는 서법에 따른 기본적인 역양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중급과 고급에서는 의미기능에 따른 역양을 함께 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다니’의 경우에도 문말 역양이 ‘-다니 1(급상승)’, ‘-다니 2(완만한 상승조)’, ‘-다니 3(하강조)’으로서 중요한 변별 정보가 됨을 볼 수 있다.

20) Leech(1983)가 공손격률(maxim of politeness)로 지적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을 최소화하라’는 찬동격률(approbation of maxim),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라’는 동의격률(agreement of maxim), ‘자신과 상대방과의 반감을 최소화하라’는 공감격률(sympathy maxim)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선행 발화에 즉각적인 의구심을 표현하며 되묻는 ‘-다니’는 공손스럽지 못한 표현이라 본다.

되물음 질문으로 사용될 때나 혼잣말에 쓰일 때조차도 ‘상황에 대한 즉각적 놀라움’을 유표적(marked)으로 표시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표적(unmarked)인 직설법 의문어미인 ‘-니?’, ‘-아/어?’와 ‘-다니’의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되물음에 사용되는 또다른 문법항목으로 ‘-다고’가 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축약 후에 의문의 수행성을 갖게 된 어미 ‘-니’로 인해 ‘-다니’가 ‘-다고’에 비해 의구심의 정도가 보다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다²¹⁾. ‘-다고’가 확인질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되는 반면에, ‘-다니’가 즉각적인 화자의 반문으로 기술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²²⁾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축약형 ‘-다니’의 공통적인 의미 특성으로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다-’)에 대한 즉각적인 화자의 의구심 표현(‘-니’)]을 추출해낼 수 있다. 축약과 유추로 인해 ‘-니’가 의문법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청자의 선행말화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게 된 결과, 공손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의사소통상황²³⁾에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다니 1,2,3’에 나타나는 공통된 의미특징이다.

4. ‘-다니’의 개별 의미기능

본 장에서는 ‘-다니 1,2,3’이 어떤 상이한 의미기능을 가지는지 특히 담

21) 선행연구에서 ‘-다니’의 의미기능으로서 의문, 비난(국립국어연구원 2004), 불평(강현화, 황미연 2009) 등을 지적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고 본다.

22) 후술되겠지만, 되물음의 양상은 다시 선행말화가 단순반복의 되물음인가(‘-다고’, ‘-다니 1’) 아니면 선행말화 내용을 근간으로 한 다른 질문도 가능한가(‘-다니 2’)로 비교된다.

23) 이는 화계(speech level)의 맥락에서가 아니고, 공손성(politeness)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니요’가 “철수가 벌써 한국에 돌아오다니요. 믿을 수 없습니다”와 같이 합쇼체의 대상에게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존칭]의 ‘-요’와 결합될 수 있고 합쇼체의 대상에게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니’는 본질적으로 반문과 강한 의구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기 어렵다.

화화용적 정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²⁴⁾. 비교를 위한 분석항목은 담화용적 조건을 상세화한 윤석민(2000)과 박재연(2006)을 바탕으로 추출해 보도록 한다.

윤석민(2000)에서는 담화화용적 조건을 ①화청자의 상대높임 조건, ②행동유발 가능성 조건(예. ‘철수가 간다’와 ‘(체육교사가) 모두 운동장에 집합한다’의 차이), ③발화 유도 여부 조건(예. ‘이보게 철수, 어디 가는가?’와 혼잣말에 쓰이는 ‘어쩔 저리도 고운가’의 차이)으로 상세화 하였다. 이 가운데 발화를 통해 담화상황이 실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와 관련된 행동유발 가능성 조건은 명령문, 청유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니’를 상론하는 본고에서는 따로 논하지 않는다.

한편 박재연(2006)에서는 담화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화자’와 관련하여, 화자 인식의 의미영역을 ①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②정보의 획득 방법, ③정보의 내면화 정도, ④청자 지식에 대한 화자의 지식 정도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문제는 ‘-다니’의 경우 오히려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정보 획득 방법의 경우, ‘-다니’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안 정보인가 아니면 화자가 직접 체험하고 인식하여 얻은 정보인가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발화조건이 되는 선행발화의 전제’와 ‘발화조건이 되는 의사소통상황의 전제’로 이해하기로 한다. 발화조건이 되는 의사소통상황의 전제는 앞장에서 논의한 ‘-다니’의 공통된 의미기능으로 추출되었던 ‘기정사실성’을 의사소통상황에 적용하

24) 부분적이었지만 ‘-다니’의 다의어적 용법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는 박나리(1998:29)가 있다. 제3자의 선행발화를 전제하는 ‘-다니 1’, 청자의 선행발화를 전제하는 ‘-다니 2’, 선행발화를 전제하지 않는 ‘-다니 3’,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다니 4’로 구분하였는데, ‘-단다’ 구문을 논하는 과정에서 ‘-다니’가 잠시 언급되는 수준이었던 까닭에 이들 ‘-다니’의 개별용법에 따른 다층위 언어정보와 제약 및 다른 ‘-다고 하-’ 축약형과의 비교 등의 상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로 이해한다. 그리고 ‘선행발화 전제’와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각을 1차 비교항목으로 두지 않고 상위에 [선행요소 전제]로 두며, 선행요소가 발화인 경우와 상황인 경우로 나뉘는 것이라고 구별한다. 한편 청자지식에 대한 화자의 지식 정도는 발화의 조건이 되는 [선행발화 전제],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와 운(韻)을 맞추기 위해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로 기술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니’ 기술을 위해 필요한 1차 담화화용적 분석항목으로서 ①화자와 청자의 높임 관계, ②선행요소 전제, ③발화 유도 가능성, ④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를 상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니 1,2,3’의 의미기능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다만 ①화자와 청자의 높임 관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니’의 ‘-니’로 인한 즉각적인 의구심의 표현으로 인해 공손성이 발휘되어야 하는 의사소통상황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다니’의 공통의미로 기술을 대신한다. 이들 1차 비교항목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연역적으로 상정했다면, 1차 비교항목 이후에 적용되는 하위의 2차 비교항목은 관련된 언어현상을 살펴나가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1차 비교항목이 일반적인 담화화용 정보와 관련된다면, 2차 비교항목은 ‘-다니’, ‘-다고’, ‘-다면서’ 등 ‘-다고 하-’ 축약형들의 세부변별을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고 하-’ 축약형의 다양한 현상을 살펴보면서 귀납적으로 추출해 가기로 한다.

4.1. ‘-다니 1’

‘-다니 1’은 아래 예(11)과 같이 상대방의 발화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화자가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반문할 때 쓰인다²⁵⁾. 그리하여 ‘-다

25) 이는 ‘-다니 1’의 유표적인 일종의 양태의미이다. 직설법 의문어미인 ‘-니?’,

니 1'에는 급상승의 문말 수행억양이 없힌다.

(11) a: 나, 다음 주에 입대해.

b: 다음 주에 입대한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다니 1’은 인용구문인 ‘-다고 하니’로 바꾸어 쓸 수 없고 ‘-대니’라는 수의적인 발음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원적인 ‘-다니(아래 예12)’와 대조적이다.

(12) a: 철수가 곧 입대한다니(→입대한다니, 입대한다고 하니)?

b: 응. 바로 다음 주에 입대한다.

그러나 (11)b의 ‘-다니 1’은 반드시 상대방의 선행발화인 ‘철수가 다음 달에 입대해(a)’가 있어야만 발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곧 ‘-다니 1’은 [선행발화 전제]라는 조건을 필수적으로 갖기에²⁶⁾, 예(13)과 같이 선행발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차 유도발화로 사용될 수 없다.

(13) a: 영화야, 오래만이네. [?]그런데 철수가 곧 입대한다니?

b: ?

이는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발화조건으로 삼지 않는 ‘환원적 -다니’(예 12)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²⁷⁾. 그런데 ‘-다니 1’은 상대방의 발화내용을

‘-아/어?’에는 이러한 유표적인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다니 1’과 비견된다.

26) 이는 후술되겠지만, [선행발화 전제]와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를 상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니 2,3’과 ‘-다니 1’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27) 이는 비록 ‘-다니 1’이 ‘-다고 하니’로 바꾸어 쓸 수는 없으나, ‘-다고 하니’가 가졌던 [인용성]의 의미자질이 ‘-다니’에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백봉자(2001:197)에서 축약형 ‘-다니’를 ‘-다고 하니’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연결어미 ‘-다니’와 구분하고 그 의미특성을 “다른 사람이 말

듣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되물음이나 반문에 쓰이지만(백봉자 2001, 이희자, 이종희 2001, 국립국어원 2004), 유사 문법항목인 ‘-다고’나 ‘-다면서’와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면서’가 화자가 제3자를 통해 들어 알고 있던 기지정보를 다시 청자에게 확인할 때 사용되는 반면에(아래 예14), ‘-다고’는 청자에게 즉각적인 의구심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아래 예15), 그렇지 않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예16)28). 또한 ‘-다면서’, ‘-다고’는 다음 예(14), (16)과 같이 1차 유도 발화에서 쓰일 수 있는데(밑줄 친 부분), 이는 그렇지 못한 ‘-다니 1’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예17의 밑줄 친 부분).

- (14) a: 잘 지냈어? 근데, 너 유학 간다면서?
 b: 응, 누구한테 들었어?
- (15) a: 나, 유학 가.
 b: 유학 간다고?
- (16) a: 잘 지냈어? 근데, 너 유학 간다고?
 b: 응, 누구한테 들었어?
- (17) a: 잘 지냈어? ?근데, 너 유학 간다니?
 b: 응, 누구한테 들었어?

여기서 우리는 [선행발화 전제]에 부가되는 2차적인 비교항목으로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를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니 1’은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다면서’는 [+선

한 것을 듣고 인용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심해서 되물음”이라고 기술한 것도 ‘-다니 1’의 이러한 인용적인 성격을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28) 이처럼 ‘동일발화 현장을 벗어나서 며칠 전이나 아주 오래 전의 어떤 발화를 다시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발화 사이의 거리가 아주 길어지는’ 데에 쓰이는 ‘-다고’를 전해영(1996:94)에서는 [화제전환]의 ‘-다고’라고 기술하였다.

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다고’는 이에 대해 수의적이고 중립적([±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²⁹⁾이라고 기술할 수 있다. ‘-다니 1’이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간격]을 갖는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직시적인 의사소통상황을 발화시 현재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다니 1’은 발화의 원천(source)이 대화 상대방인 경우도 가능하지만(예18), 아래 예(19)에서 보듯이 제3자인 경우도 가능한데 이는 ‘-다고’와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예18', 19')

- (18) a: 나 내일 유학 가.
- b: 유학 간다니?
- (19) a: 철수가 내일 유학 간대.
- b: 철수가 유학 간다니?
- (18)' a: 나 내일 유학 가.
- b: 유학 간다고?
- (19)' a: 철수가 내일 유학 간대.
- b: 철수가 유학 간다고?

그러나 ‘-다면서’의 경우는 아래 예(20)에서 알 수 있듯이 발화의 원천이 반드시 제3자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니 1’, ‘-다고’와 이질적이다.

29) ‘-다면서’와 ‘-다고’를 비교해 보면, ‘-다면서’의 경우, 발화를 들었을 때와 그 발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아래 예1,2), ‘-다고’는 이에 대해 수의적(隨意的)(아래 예3,4)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예1)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다면서?
- 예2) a: 나, 미국으로 유학 가.
- *b: 미국으로 유학 간다면서?
- 예3)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 예4) a: 나, 미국으로 유학 가.
- b: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 (20) a: 철수가 내일 유학간대.
 b: *철수가 유학 간다면서?

요컨대, [선행발화 전제]에서 ‘-다니 1’은 발화의 원천이 2,3인칭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고’와 공통적이지만, 3인칭만을 발화의 원천으로 전제하는 ‘-다면서’와 이질적이다. 또한 즉각적인 화자의 의구심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도 ‘-다니 1’과 ‘-다고’는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다면서’와 다르다. 그러나 ‘-다니 1’은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간격]을 가지고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의 중립적인 ‘-다고’와 차이가 있다. 또한 ‘-다니 1’은 상대방이 말한 발화내용을 화자가 다시 되묻는 것이므로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를 확실한 발화조건으로 갖는다.

형태 정보와 관련하여, ‘-다니 1’ 앞에는 일반적으로 시제서법소가 오지만, 아래 예(11)와 같이 시제서법소 없이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된다.

- (11) a: 나, 다음 주에 입대해.
 b: 다음 주에 입대하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는 시제서법소가 개념적인 명제를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시켜 현실 속에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Radden, Driven 2009:269)는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화자가 선행명제인 ‘다음 주에 입대하-’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발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³⁰⁾.

마지막으로 ‘-다니 1’은 ‘환원적 -다니’와도 비견될 수 있다. ‘-다니 1’

30) 개념화와 시제서법소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4.3.에서 시제서법소를 필수적으로 선행시키지 않는 ‘-다니 3’을 살펴볼 때 다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은 ‘-다고 하니’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대니’라는 수의적 발음형태를 가지지 않으며,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발화의 조건으로 갖는다는 점에서 ‘-대니’로 발음될 수 있고 3인칭 화자의 발화원천을 조건으로 하는 ‘환원적 -다니’와 다르다고 정리될 수 있다.

4.2. ‘-다니 2’

‘-다니 2’는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다른 사람의 발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발화 전제]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다니 1’과 유사 문법항목인 ‘-다고’, ‘-다면서’와 이질적이다. 달리 말하면 ‘-다니 2’는 선행발화 없이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라는 선행요소가 있어도 발화 가능하다. 가령 아래(21)을 보면, 선행발화가 없음에도 추운 날씨라는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아래 별 문제없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1) (외출하고 돌아와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니?

그러나 ‘-다니 2’는 의사소통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화자의 기정적 인식이 확보되지 못한 아래 (22)와 같은 경우에 쓰이면 다소 어색하다.

(22) (가게에서 옷을 골라 입어본 후 거울 앞에 서서 친구에게)
?잘 맞다니?

반면에, 기정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상황에서는 ‘-다니’의 쓰임이 매우 자연스럽다³¹⁾.

31) 물론 같은 발화상황에서 ‘잘 맞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때에는 주제

(23) (아기 옷을 선물한 친구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통화에서)

a: 네가 사 준 옷 너무 예뻐.

b: 잘 맞다니? (O)

화자 자신의 기정사실적 인식뿐만 아니라 ‘다니 2’는 이미 정보나 상황에 대해 청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화자가 전제하는 상황에서, 곧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가 이루어진 의사소통상황에서도 쓰인다. 그리하여 아래 (24)와 같이 청자가 의사소통상황에 대한 기정적인 인식을 충분히 가질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24) (같이 걷다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진 아이에게 바로)

괜찮니?(O) / ?괜찮다니?

이는 앞서 살펴본 ‘다니’의 ‘-다’가 가진 [화자의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 인식]의 의미기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니 1’에서도 [화자의 청자기정 지식 전제]는 분명한 발화조건이었다. 상대방에게 그가 말한 발화를 되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니 2’의 화자가 예상하는 청자의 기정지식 수준은 기정적인 의사소통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의 수준으로서, 청자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되묻는 ‘다니 1’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질문’은 청자에게 ‘대답’이라는 반응을 요구하는 수행성을 갖는다. 그런데 ‘-다니 2’를 사용한 질문은 때로 청자에게 진정한 해답을 요구한다기보다 수사적(修辭的)이거나 화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자문(自問)의 인상을 준다. 이는 ‘다니 2’가 [발화 유도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theme)에 대한 [화청자 기정적인 인식]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 (25) 요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졌니?
- (26) 요즘 날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졌더니?

직설법 의문어미 ‘-니’가 쓰인 위의 예(25)가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서 청자에게 물어보는 데 반해, ‘-다니 2’가 쓰인 예(26)은 그보다는 날씨가 추워진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의문사를 동반해서 물어볼지라도 진정으로 그 의문사에 대응하는 대답을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의 사실성을 재확인하고 그 기정적 사실성에 대한 화자 자신의 의외성과 의구심을 표현하는 데에 ‘-다니 2’가 쓰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 이럴 경우, ‘-다니 2’가 아래 (27)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런’, ‘그런’, ‘저런’ 등의 직시소(deixis)와 공기(co-occurrence)한다는 것이다.

- (27) 넌 왜 그렇게 바쁘다니?
 넌 요새 무슨 약속이 이렇게 많다니?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본고는 이러한 직시소들이 ‘-다니’의 공통적인 의미기능인 [기정사실성]의 상황적 맥락이 언어현상 속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직시소는 발화시 현재, 화자와 청자가 함께 처한 의사소통상황의 정보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³²⁾,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기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³³⁾.

32) 이러한 직시소들은 대상에 대한 기술을 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언어 기호를 따로 명세화하지 않고 시각적, 통각적 자극을 유발시킴으로써 단순히 사태를 보고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제적이다(차현실 1998:29-31). 가령, 다음은 차현실(1998:28)에서 가져온 예인데, TV 대담 상황에서 사회자가 방청자들이 목도리를 매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라는 하나의 직시표현으로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발화함을 볼 수 있다.

예) 목도리를 하날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많은 멋을 연출할 수 있는 겁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우리는 ‘-다니’가 불평화행으로 기술된 것(강현화, 황미연 2009, 김지혜 2011)을 살펴보았는데, ‘-다니 2’의 이러한 특성으로 불평의 맥락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라 풀이된다. 불평이란 본질적으로 문제해결 자체보다 당면한 기정적인 문제의 어려움이나 불쾌함 등에 대한 뉘드리에 표현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³⁴⁾ 형태통사적으로도 ‘-다니 2’는 ‘-다니 1’과 달리 ‘-요’가 결합되지 못한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27’).

(27) *선배님은 왜 그렇게 바쁘다니요?

*엄마는 요새 무슨 약속이 이렇게 많으시다니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요?

이는 ‘-다니 2’의 불평화행적 속성과 관련 있다고 본다. ‘-다니 2’의 불평화행적 속성과 ‘-요’의 [존칭]의 속성이 일종의 의미기능적 충돌을 일으켜 공기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보인다.³⁵⁾

한편 ‘-다니 2’가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전제하는 상황에서 쓰이면 되

니까.

33) 다음 예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발화시의 의사소통상황 정보가 화청자 간에 공유되지 못한 경우에 직시소가 쓰였기 때문이다.

예) (아기와 엄마가 서로 전화 통화하는 상황)

a: 엄마, 나 이거 너무 맛있어.

b: 이게 뭔데?

a: 이거, 이거 말이야, 이거.

b: ?

34) ‘도대체’, ‘대관절’과 같은 부사들과 ‘-다니 2’가 자연스럽게 공기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5) 한 심사위원께서는 왜 ‘-다니 2’가 ‘-요’와 결합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는데, 뚜렷한 형태통사적인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기에 일단 화용적 차원에서 설명한다. 날카로운 지적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는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한 후 자리를 달리하여 논하려고 한다.

물음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다고’ 및 ‘-다니 1’과 공통적인 것이지만,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고’, ‘-다니 1’이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단순반복하여 확인 질문하는 데에 사용되기에 관련된 다른 질문을 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아래 28,29), ‘-다니 2’는 단순반복뿐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발화 내용에 근거한 관련된 질문을 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아래 30).

- (28) a: 어제 영화 언니를 만났어.
 b: *영화 언니도 영화처럼 키가 크다고?(↑)
 a: 응.
- (29) a: 어제 영화 언니를 만났어.
 b: *영화 언니도 영화처럼 키가 크다니?(↑)
 a: 응.
- (30) a: 어제 영화 언니를 만났어.
 b: 영화 언니도 영화처럼 키가 크다니?(↗)
 a: 응.

여기서 우리는 ‘-다니 2’를 위한 또다른 2차 비교항목으로서 [선행발화 단순반복] 여부를 추출해 볼 수 있다. ‘-다고’와 ‘-다니 1’은 [+선행발화 단순반복]의 속성을 갖고, 급상승(↑)의 문말역양을 갖는 데 반해, ‘-다니 2’는 이에 대해 중립적인 [±선행발화 단순반복]의 속성을 갖고 완만한 상승의 문말역양(↗)을 갖는다고 정리될 수 있겠다. 한편 형태적으로도 ‘-다고 2’는 ‘-요’와 결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고’, ‘-다니 1’과 대조적이다. ‘-다니 2’가 [발화 유도 가능성]과 [선행발화 전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니 1’과 차이 나는 점이다. [선행발화 전제] 대신에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를 상보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자문이나 수사적인 질문의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

다니 2’의 발화에서 ‘-다니’와 공기되는 직시소는 발화시 현재 화청자가 함께 하는 의사소통상황에 대한 기정적인 정보를 경제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언어표현으로 ‘-다니 2’의 화자가 가진 기정사실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달리 말하면 ‘-다니 2’의 발화에 나타나는 직시소는 기정적 의사소통상황에 대한 화청자 인식의 확인을 코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니 2’와 공기하는 의문사는 청자에게 응답을 진정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을 인식한 화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이나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으로 불평의 맥락에서 ‘-다니 2’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된다고 해석된다.

4.3. ‘-다니 3’

‘-다니 3’은 선행요소가 발화일 수도 있고 의사소통상황일 수도 있다. 아래 예 (31)은 전자의 예이고 (32)는 후자의 예이다.

(31) a: 다음 주면 벌써 방학이에요.

b: 아, 벌써 방학이라니...

(32)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고)

버스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다니...

또한 ‘-다니 3’은 아래 예와 같이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징하는 상관적 장면에서보다 단독적 장면인 혼잣말의 맥락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이 독특하다.

(33) (신년 달력을 걸면서) 어느새 내가 불혹이라니...

달리 말하면, ‘-다니 3’에는 [발화 유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는 ‘-다니

1,2'를 포함해서 다른 '다고 하-' 축약형인 '-다고?', '-다면서?', '-다니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청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 발화상황이므로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에서도 대단히 소극적이다. 발음역양의 측면에서는 '-다니 3'에는 완만한 하강조가 없는데 이는 급격한 상승조의 '-다니 1'과 완만한 상승조의 '-다니 2'와 다른 점이다³⁶⁾.

한편, 형태통사 층위에서 보았을 때에 '-다니 3' 앞에 '-있/았-', '-졌-' 등의 시제서법소가 오지 못한다는 점 역시 '-다니 1,2'와 다른 점이다. 시제서법소를 선행시키지 않는다는 제약은 '-다니 3'의 화자가 사태의 개념적 의미를 추상화하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시제서법소는 추상적이고 어휘적인 개념의 동사를 특정한 시공간에 위치 지우는 '지시(indicate)'적 역할을 한다. 곧, 개념적 상황을 시간과 현실 속에 고정시키는 것이다(Radden, Driven 2009:269-273 참조)³⁷⁾. 가령 아래의 예에서 시제소가 없는 부정사 'to walk'는 걷는다는 개념적 의미 자체를 가리키는데 반해, 과거 시제소가 결합된 'walked'는 구체적인 행동주인 'Tom'이 '어제 밤'이라는 특정 시간에 '하이드파크'라는 특정 공간을 '걸었던 사건'을 가리킴을 볼 수 있다.

36) '-다고 하-' 축약형 가운데 문말역양이 하강조인 경우는 '-다니 3' 외에 아래의 '-다니까'가 있다.

예) a: 나 왔어.

b: ...

a: 나 왔다니까.

그러나 문말하강조라는 것 외에는 '-다니 3'과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데 '-다니까'가 [+화자 스스로 말한 선행발화 전제], [+선행발화 단순반복]의 특성을 갖는 데 반해, '-다니 3'은 [+선행발화 전제]로서 [+기정적 발화상황 전제], [-선행발화 단순반복]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37) 구체적으로, 시제(tense)는 상황의 시간을 명시하고 동시에 그 현실 상태에 관한 개념들을 불러일으키고, 서법(modality)은 상황이 잠재적 현실을 가진 것으로 특징짓는다(같은 책: p269).

(34) To walk is to exercise.

(35) Tom walked around Hide park last night.

[추측](-겠-, ‘-을 것-’ 등)이나 [지각](-네-, ‘-더-’ 등)과 같은 서법소가 올 수 없다는 제약도 화자가 명제의 개념적 의미를 ‘중립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다. 곧 ‘-다-’ 앞에 시제소나 서법소가 올 수 없고 오직 개념적 의미만을 갖는 명제문이 온다는 ‘다니 3’의 형태적 제약은 화자가 선행명제를 구체적인 시공간을 점유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다-’ 뒤에 ‘-니’를 결합시킴으로써 이 기정적 개념 자체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 곧 이러한 기정적 개념을 몰랐던 것에 대한 화자 자신의 느낌과 놀라움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다니 1’이 주의적으로 시제서법소를 선행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보았는데, ‘다니 3’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선행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니 1’과 차이가 있다. 또한 ‘다니 1’이 즉각적인 되물음에 사용되기에 질문이라는 수행성을 갖는 반면, ‘다니 3’은 주로 혼잣말에서 서술, 감탄으로 사용되기에 진술의 수행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문말억양도 각각 급상승조와 하강조로 대비된다.

결론적으로, ‘다니 3’은 발음억양 면에서 하강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니 1,2’와 구별되고 형태통사 면에서 시제서법소를 선행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니 2’와 구별된다. 담화화용 면에서도 [발화 유도 가능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니 1,2’와 구별되는데, ‘다니 3’이 청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장면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이 ‘다니 3’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청자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다니 3’은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도 갖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기능별로 ‘다니 1’, ‘다니 2’,

‘-다니 3’을 이항대립으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여기서 ()는 해당하는 1차 비교항목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2차 비교항목을 말하며 ‘±’는 수의적(隨意的)임을 뜻한다.

<표 2> 의미기능에 따른 ‘-다니’ 상호 비교

문법항목	비교 분석 항목
‘-다니 1’	[+문말억양 급상승], [±시제서법소],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 표현]([-공손성]), [+선행요소 전제](+선행발화 전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 단순반복], [±선행발화 개념화]),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다니 2’	[+문말억양 상승], [+시제서법소],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 표현]([-공손성]), [+선행요소 전제](+선행발화 전제) 또는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 단, 선행발화 전제 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 단순반복]),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다니 3’	[-문말억양 상승], [-시제서법소],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 표현], [+선행요소 전제](+선행발화 전제) 또는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 단, 선행발화 전제 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 단순반복], [+선행발화에 대한 개념화]),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5. ‘-다니’의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다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법적 기술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³⁸⁾. 한국어 교육문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구성한 한국어 문법체계이므로 실용성, 유용성, 개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어문법, 국어교육문법과 차별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문법에 기대지만 교수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문법을 따르지 않

38) ‘-다니 1’과 ‘-다니 3’을 의미기능적 상관성과 기술의 유용성에 근거하여 다 의어로 보고 ‘-다니 2’를 이들과 동음이의어 관계로 제안한 본장은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주신 지적과 제안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드린다.

을 수도 있고(강현화 2009:194), 생산과 응용이 중요하므로 분석적이기보다 종합적 관점의 문법 패턴 위주의 문법이 오히려 강조되기도 한다(고경태 2008:491). 곧 한국어 교육문법적 맥락은 문법성 자체보다는 문법의 효용성을 중시하고 개념적인 지식보다는 실용성과 유용성에 입각한 언어정보를 중시하며, 체계성보다는 개별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이미혜 2005:23-26). 이러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의미기능적인 상관성이 높은 것은 서로 묶어 다의적인 용법으로 제시하고 의미기능적인 상관성이 낮은 것은 동음이의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분석항목에 근거할 때 서로 대조되는 점이 비록 많아도 그러한 대조요소들이 일률적으로 설명가능한 것은 분석적보다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니’ 가운데 ‘다니 1’과 ‘다니 3’은 ‘다니’의 공통 의미기능인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에 대한 즉각적 의구심의 표현] 외에 [선행발화 전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에 대한 개념화]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시제서법소]의 경우 ‘다니 3’은 선행시키지 않지만, ‘다니 1’은 선행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제서법소를 필수적으로 선행시키는 ‘다니 2’와 공통된 차이가 있다. ‘다니 1’과 ‘다니 3’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 지식 전제],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 [문말억양]은 수행성과 의사소통상황을 통해 일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다. ‘다니 1’이 질문의 수행을 갖기에 대답이라는 [발화 유도 가능성]을 가지는 반면, ‘다니 3’은 진술, 그 중에서도 혼잣말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발화 유도 가능성]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될 수 있고 문말억양도 수행력의 차이로 일원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화자의 청자 기정 지식 전제]도 ‘다니 3’이 혼잣말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것과 관련지어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이 남는데, 이는 ‘-다니 3’의 개별적 속성으로 추가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니 1’과 ‘-다니 3’을 ‘-다니 1’로 묶어 다의어 관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니’ 뒤에 ‘1’이라는 번호를 붙인 이유는 후술될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다니 2’와 구별하기 위함이다³⁹⁾. 이렇게 재정립된 ‘-다니 1’의 의미기능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사전에서 다의어용법이 하나의 표제어 아래 하위 번호로 구분된다는 점(이희자, 이종희 2001)을 참조하여 ‘-다니 1’의 다의어적 용법은 ‘-다니 1①’과 ‘-다니 1②’로 구분하였으며 유사 문법항목과의 비교내용은 () 안에 기술하였다.

<표 3> ‘-다니 1’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

‘-다니 1’	
의 미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기정사실이었던 것에 대해 의외적인 놀라움이나 의구심을 느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즉각 반사적으로 나타냄. ▷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문하는 상황에서 쓸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외적인 놀라움을 혼잣말로 할 때도 쓸 수 있음. ▷ 반문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공손한 표현이 아님.
구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니 1①’: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즉각적 반문이므로 급상승조 (※참조 ‘-다면서’: 발화현장에 없는 제3자의 발화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질문 ‘다고: 발화의 원천(source)이 대화 상대방(2인칭)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음. 즉각적인 반문에도 쓰이고 화제전환을 할 때에도 쓰임. ‘다고 하니’로 바꿀 수 있는 ‘-다니’: ‘-대니’로 발음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니 1’과 다름. 발화의 원천이 반드시 발화현장에 없는 제3자여야 함.) ▷ ‘-다니 1②’: 혼잣말의 감탄서술이므로 하강조 (※참조 ‘-다니까: 하강조. 그러나 화자 본인이 바로 전에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며 청자에게 주의를 기울여 들으라는 뜻을 강하게 내비침.)

39) 동음이의어는 사전에서 ‘-다니 1’, ‘-다니 2’와 같이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되는 반면에, 다의어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 하위 번호로 나뉘어져 기술된다.

형태통사	▷‘-다니 1①’: 일반적으로 시제서범소가 선행됨. 사건을 추상적으로 개념화시켜 인식할 경우, 시제서범소 없이 바로 어간에 결합되기도 함.
	▷‘-다니 1②’: 바로 어간에 결합됨.
담화화용	▷‘-다니 1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단순반복으로 즉각 되물음. (※참조 ‘-다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단순반복하여 즉각 되물음. 그러나 의구심의 강도는 ‘-다니’에 비해 약함. 화제전환 기능도 있음.)
	▷‘-다니 1②’: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혼잣말에서 주로 쓰임. 상황을 통해서 기정사실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한편 ‘-다니 2’는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단순반복 질문]에서 수의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그 개성이 매우 뚜렷하다. 즉 ‘-다니 2’의 화자는 청자(상대방)가 반드시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발화 유도 가능성을 전제하는 ‘-다니 1(①)’, 혼잣말에 많이 쓰이는 ‘-다니 1(②)’와 비견된다. 또한 ‘-다니 2’는 의사소통상황에 대한 청자의 기정적 인식만 있으면 발화가 가능하다. 이는 청자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으리라 믿고 되묻는 ‘-다니 1(①)과 청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다니 1(②)’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단순반복 질문뿐만 아니라 화자가 재구성한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반복의 반문인 ‘-다니 1(①)’과 대조되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시제서범소를 반드시 선행시켜야 한다는 점, 의문사와 직시소를 공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요’와 결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불평장면에서 나타난다는 점 등도 ‘-다니 1’과 함께 묶이어 다의어로 설명되기 어려운 ‘-다니 2’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니 2’를 앞서 정립한 ‘-다니 1’과 유기적인 관련 하에 보지 않고 독립된 동음이의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니 2’의 의미기능을 <표 4>와 같이 정리한다. 유사 문법항목과의 비교내용은 () 안에 기술하였다.

〈표 4〉 ‘-다니 2’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

		‘-다니 2’
의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반감적인 의구심을 표현 ▷ 상대방의 말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평을 말하므로 공손한 표현은 아님.
구 분	발음 의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문의 완만한 상승조 (※참조: ‘-다니 1(①)’: 급상승조, ‘-다니 1(②)’: 하강조)
	형태 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의 발화상황에서는 의문사와 ‘이, 그, 저’ 지시표현이 함께 음. ▷ ‘-요’와 결합될 수 없음. ▷ 시제서법소가 반드시 앞에 음. (※참조 ‘-다니 1(①)’: 시제서법소 수의적, ‘-다니 1(②)’: 시제서법소 불가)
	담화 화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이 대화의 주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사용 ▷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기정적 상황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때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불평상황에서 많이 쓰임. 이때에는 선행발화 없이 담화의 서두에 바로 나올 수 있음. (※참조 ‘-다고’: 상대방의 말에 대한 즉각적인 되물음에도 쓰이지만, 화제 전환으로 쓰일 경우에는 담화의 서두에도 나올 수 있음.) ▷ 상대방에게 반드시 응답을 요구하지는 않음. (※참조 ‘-다니 1(①)’: 상대방에게 확인응답을 요구, ‘-다니 1(②)’: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음.) ▷ 상대방의 말을 듣고 관련되는 질문을 하는 데도 사용 (※참조 ‘-다니 1(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즉각 단순반복으로 되물음, ‘-다니 1(②)’: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음, ‘-다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즉각 단순반복으로 되물음.)

6. 결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문법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문법화 된 ‘-다고 하-’ 축약형 연구의 일환으로, ‘-다고 하-’ 축약형 가운데 가장 다양한 의미기능을 보이는 ‘-다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화자, 청자, 의사소통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연루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각별한 담화화용 정보를 중심으로 ‘-다니’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의미기능들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구체적인 분석항목을 마련하여 동일 분석항목에 의거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이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유사 문법항목 변별이 ‘다니’의 문법기술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다니’와 공통요소를 가진 ‘다고’, ‘다면서’, ‘다니까’ 등을 ‘다니’와 비교해 봄으로써, ‘다고 하-’의 축약형 전체체계 속에서 ‘다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상대방의 발화내용에 대한 즉각적 반문에 쓰이는 ‘다니(5장 재정립 전의 ‘다니 1’)'와 혼잣말에서 의외적 감탄을 나타내는 ‘다니(5장 재정립 전의 ‘다니 3’)'가 [선행명제의 기정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에 대한 즉각적 의구심의 표현]라는 ‘다니’의 공통된 의미기능 외에 [선행발화 전제], [선행발화와 현발화의 시공간적 차이], [선행발화에 대한 개념화]에서 공통적임을 알 수 있었다. 양자의 차이로 할 수 있는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 지식 전제], [기정적 의사소통상황 전제], [문말억양]은 수행성과 의사소통상황을 통해 일원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고 ‘다니 1’과 ‘다니 3’을 묶어 ‘다니 1’로 재정립하고 다의적 용법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불평장면에서 많이 쓰이는 ‘다니(‘다니 2’)'는 [발화 유도 가능성], [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 [단순반복 질문]에서 수의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재정립된 ‘다니 1’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시제서법소를 반드시 선행시키고 의문사와 직시소를 공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도 매우 특징적이었다. 따라서 ‘다니 2’의 경우, 재정립된 ‘다니 1’과 동음이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형태(form)의 ‘다니’의 다의적 관계와 동음이의적 관계를 살폈으나, 이질적인 형태(form)를 가진 사용역이 넓은 유사 문법항목들에 대한 기술도 한국어 교육문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또한 유사 문법항목과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고’, ‘-다면서’ 등을 ‘-다니’와 비교하였으나, 범위를 넓혀 보다 다각적으로 ‘-다고 하-’ 축약형들 간의 비교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한국어 교육문법적 기술방안을 바탕으로, ‘-다고 하-’ 축약형에 대한 문법 기술을 어떻게 한국어 교재 안에서 학습자 문법으로 담아내고, 이를 어떠한 학습활동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 문헌>

고경태(2008). 한국어의 문법, <한국어와 한국어교육(개정판)>(박영순 편), 서울: 한국문화사.

강현화(2009). 한국어 문법교수법 1, <한국어교육의 이해>,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한국문화사.

_____ (2010). 한국어 종결표현의 화행기능과 한국어 모어화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17-2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405쪽-431쪽.

강현화·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연구-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호, 한말연구학회, 5쪽-31쪽.

국립국어연구원(2004).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한국어교육 자료총서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성미(2010).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교육> 21-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쪽-24쪽.

김영아·조인정(2012).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보고 표지 ‘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1호, 1쪽-24쪽.

김지혜(2011). 담화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인용표현 교육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45쪽-65쪽.

박나리(1998). 비환원적 ‘단다’ 구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방성원(2004). 한국어 문법화 형태의 교육방안, <한국어교육> 15-1호, 93쪽-110쪽.

_____ (2011). 문법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연구, <한국어교육> 22-2호, 187쪽-211쪽.

- 백봉자(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안명철(1990). 국어의 융합현상,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121쪽-137쪽.
- 안주호(2012). 한국어교육과 양태표현, 서울: 한국문화사.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서울: 집문당.
- 이금희(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간접인용문 변형,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81쪽-102쪽.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박이정.
- 이윤진(2009).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형표현 100,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지양(1985). 융합형 ‘래도’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09쪽-331쪽.
- 이필영(1995). 통사적 구성에서의 축약에 대하여, <국어학> 26, 국어학회, 1쪽-32쪽.
- 이혜영(1998). 문법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15-1, 411쪽-438쪽.
- 이희자, 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어미, 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장미라(2008). 한국어 인용문의 교육내용 선정과 배열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38, 419쪽-438쪽.
- 전혜영(1996). ‘-다고’ 반복 질문의 화용적 기능, <언어> 21-3, 한국언어학회, 889쪽-911쪽.
- 차현실(1998). 지시표현의 사용실태와 적합성, 현대국어의 사용실태 연구, 서울: 태학사.
-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릉: 강원대 출판부.
- Bybee, J.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Leech, G.(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Inc.
- Levinson, S.(1985). 이익환, 권경원 역(1996), 《화용론(Pragmatics)》, 서울: 한신문화사.
- Radden, G., Driven, R.(2007). 임지룡, 윤희수 역(2009), 《인지문법론 (Cognitive English Grammar)》, 서울: 박이정.

박나리(Park Naree)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로 163

전화번호: 02-2210-5330

전자우편: koreanr@hanmail.net

접수일자: 2012년 12월 19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2월 12일

게재확정: 2013년 2월 18일